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 개요

- 기관명 :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
- 일 시 : 2019.9.6. (금) 13:00 ~ 15:30
- 내 용 : 사회적협약(MOU) 및 봉사활동 · 가전제품 지원
- 참석자 : 효율기술실 임직원 10명
- 작성자 : 효율기술실 이윤철 대리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 현황>

- 설립목적 : 최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직업재활분야의 리더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낸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인원현황 : 직원 총 72명(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52명(70%))

□ 내용

- 대동사회(大同社會), '다 같이 더불어 잘 산다' 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는 현재에 만족하고, 누군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누군가와 나누면 행복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9월에 방문한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은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결론은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

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여, 여러 방법을 생각한 끝에 굿월스토어라는 곳을 찾아 접촉을 하게 되었다. 먼저, 해당 지점의 대표님과 통화를 했을 때, 흔쾌히 응해주셨지만 한 편으로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다. 우리가 원했던 바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굿월스토어는 한 매장에서 하루에 각종 물건이 2,000점 이상이 판매되므로 물품 기증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찾고 있는 우리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적합한 곳이라 판단이 되었다. 또한 물품기부뿐만 아니라 중고물품의 선별, 매장판매, 포장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가 가능하므로 적합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대표님과 한 번의 면담과 여러 번의 통화를 거치며 사회적협약(MOU)을 서로 맺고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과 해당 담당자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협약·봉사활동 당일 시설의 대표께서 굿월스토어의 설립 이력과 목표, 비전,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 번 해당 기관과 같이 협약을 하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게 느껴졌다. 협약식 때도 장애인 사무실에 계셨던 장애인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 또한 그들의 해맑은 미소 때문이었을까... 너무 좋았다.

사실 협약·봉사활동 당일에 기증할 에어컨을 배달하고 싶었지만, 울산에서 이동을 시켜야 하는 점 때문에 미리 배달을 시켰다.



사회적협약(MOU) 및 기념사진촬영



에어컨 기증(이관)

매장으로 직접 배송시킨 에어컨 외에 올해 기증할 제품들의 대부분은 물량이 다소 많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들이 많아 밀알송과점에는 놓을 장소가 부족하여 보관하지 못한다고 하여 미리 연락을 취하고 이천의 굿윌스토어 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증물품(이관)

빠르게 협약식을 마치고 난 후에 해당 지점의 사무실과 매장 등을 둘러보고 대표님이 직원들과 직접 어울리면서 일할 수 있는 매장 정리를 추천해주셨고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자원봉사자와 직원들과 함께 짧지만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놀랐는데, 해당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물건을 사 가는 것이다. 물론 기업체에서 싸게 재고를 넘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 쓰지는 않는 제품을 기증하면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깨끗하게 손질한 물품들을 손님들이 싸게 사갔다. 이 판매수익은 해당 지점의 장애인분들의 월급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매장에서 나름(?)분주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눈이 마주친 직원 분은 저를 향해 씨익 웃고 있었다. 직원 분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이파이브를 요청했다.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하이파이브와 함께 환호로 호응을 해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매장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제2의 집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50여 명의 장애인분들에게 이 곳은 집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그들의 행동, 미소에서 그것이 느껴졌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부끄럽지만 나도 그들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아쉽지만 다소 짧은 시간인 2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인사를 주고받고 나오면서 앞으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정말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주위에는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먼저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기대한다. 이번에 내딛은 첫 걸음이 아주 긴 길이 될 수 있기를...

- 에필로그

굿월스토어 밀알송과점에 도움을 주시려면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홈페이지 : www.miralgoodwill.org

전화 : 02-6913-9135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사회공헌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발성이며 보여주기 식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